

# “10월부터는 공격 축구할 것”

### 신태용 감독, “이제는 우리가 경쟁력 있는 축구 구사해야 한다”

한국에 9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선사한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이 다음 달 A매치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축구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우즈베키스탄 원정경기를 마치고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신태용 감독은 취재진과 만나 “10월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공격 지향적으로 나서 좀 더 강한 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9회 연속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에 진출한 것은 모든 것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기쁘다”고 말한 신태용 감독은 부진한 경기력을 문제 삼는 시선에 대해 “내가 맡은 9~10차전도 질타 받아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 목표는 월드컵 진출이었다”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 신태용 감독 일문일답

-본선 진출 소감은.  
“9회 연속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에 진출해 모든 것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기쁘다.”

-최종예선에서 팬들의 실망이 큰데.  
“내가 맡은 9~10차전도 질타 받아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 목표는 월드컵 진출이었다. 이제는 우리가 경쟁력 있는 축구를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까.  
“질질하지 않고 골을 넣어야 한다. 그러면 이기고 올라갈 수 있다. 물론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래도 세계 강호들에도 내러서지 않고 맞붙어 이기는 방법을 남은 9개월 동안 생각해보겠다.”

-다가올 A매치 계획은 내년 전지훈련 구상은 얼마나 됐나.  
“사실 2연전 외에는 생각하지 않았다. 스케줄도 잘 몰랐다. 10월 A매치 데이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잘 몰랐다.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하나도 없다.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겼으니 쉬면서 생각해보겠다.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월드컵 본선 9회 진출에 성공한 축구 국가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골을 안 먹기 위해 수비를 두텁게 하면 골 결정력 이야기가 분명히 나온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2연전은) 무조건 무실점으로 간다고 했다. 지향하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치중했다. 골 결정력 부족은 인정한다. 10월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공격 지향적으로 나서 좀 더 강한 팀을 만들겠다.”

“골을 안 먹기 위해 수비를 두텁게 하면 골 결정력 이야기가 분명히 나온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2연전은) 무조건 무실점으로 간다고 했다. 지향하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치중했다. 골 결정력 부족은 인정한다. 10월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공격 지향적으로 나서 좀 더 강한 팀을 만들겠다.”

/뉴시스

## 문체부, 조직위-강원도-kt와 평창올림픽 붐업 위해 ‘맞손’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 kt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분위기를 조성(붐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 강원도 조직위는 앞으로 올림픽 붐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광고 등을 상호 협업체 추진하고 kt가 제공하는 5세대(5G) 통신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kt는 평창올림픽 통신 공식파트너로서 안정적인 통신·방송중계 서비스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운용, 해외 홍보 활동 지원, 특화서비스 개발, 예산 및 인력 지원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또 올림픽 붐업을 위한 추가 투자도 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주관부처로서 대회 개최 1년 전(G-1년), 200일 전(G-200일) 등 주요 계기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행사를 열고 있다.

이는 대회 개최 150일 전(G-150일)과 성화 봉송이 시작되는 대회 개최 100일 전(G-100일)에도 이어진다. 특히 9월부터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매체 홍보, 오프라인 홍보 등에 온 힘을 다할 예정이다.

문체부 노태강 차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은 새 정부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국정과제다. 앞으로 문체부, 강원도, 조직위, kt

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을 합쳐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창 대회의 입장권 판매와 오는 11월1일부터 시작되는 올림픽의 전국 성화 봉송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계올림픽 입장권은 지난 5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며, 누리집(<https://tickets.pyeongchang2018.com>)을 통해 선착순으로 구매할 수 있다.

오는 11월8일부터는 서울시청, 강릉시청, 강원도청, 인천·김포공항 고속철도(KTX) 19개 역사에서의 현장 판매도 시작된다.

/뉴시스

## 추신수, 시즌 16번째 2루타... 1안타 1타점

### 3경기 만에 선발 복귀...5일 애틀랜타전 이어 2경기 연속 안타 행진

3경기 만에 선발 라인업에 복귀한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16번째 2루타를 때려냈다.

추신수는 7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선트러스트 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2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지난 3일 LA 에인절스전 이후 3경기 만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추신수는 지난 5일 애틀랜타전에 이어 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다.

전날 비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텍사스와 애틀랜타는 이날 더블헤더를 치르게 됐다.

1회초 첫 타석에서 추신수는 상대 좌완 선발 루이스 고하리를 상대로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발카운트 1B2S에서 고하리의 4구째 슬라이더에 헛스윙을 했다.

3회 1사 2루 상황에서 중견수 플라

이로 물러난 추신수는 텍사스가 6-4로 역전한 4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추신수의 방망이는 6회 날카롭게 돌아갔다.

추신수는 텍사스가 9-4로 앞선 6회 선루타자 달리노 드실즈가 2루타를 때려낸 뒤 4번째 타석에 들어섰다.

상대 구원 맷 위슬러를 상대한 추신수는 초구 투심 패스트볼을 노려 쳐 좌측상상 2루타를 직렬, 2루에 있던 드실즈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추신수의 시즌 타점은 66개가 됐다. 후속타자 엘비스 앤드루스의 안타로 3루를 밟은 추신수는 카를로스 고메스의 희생플라이로 홈으로 파고 들어 득점을 올렸다.

추신수는 8회 무사 1루에서 유격수 직선타로 물러났고, 8회말 수비 때 교체돼 이날 경기를 마쳤다.

텍사스는 애틀랜타와 난타전을 벌인 끝에 12-8로 이겼다.

/김민기기자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16번째 2루타를 때려냈다.

## ‘토르:라그나로크’ 미국보다 먼저 개봉 ‘10월25일 확정’

마블스튜디오 ‘토르’ 시리즈의 세 번째 편 ‘토르:라그나로크’(감독 타이카 와이티티)가 다음 달 25일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7일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에 따르면, ‘토르:라그나로크’는 북미(11월3일 개봉)보다 일주일 앞서 국내 영화 관객에게 선을 보인다.

영화는 ‘토르:천둥의 신’(2011) ‘토르:다크 월드’(2013)에 이어 ‘토르’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이다.

크리스 험스워스가 이번에도 ‘토르’를 맡았고, ‘어벤져스’ 시리즈 등에서 ‘헛스윙’ 연기한 마크 러팔로가 힘을 보탠다. ‘로키’ 역의 톰 히들스턴이 다시 한 번 마블 영화에 모습을 드러냈고, 마블 시리즈 최초 여성 악당



‘헤라’는 케이트 블란쳇이 책임졌다. 이번 작품은 죽음의 여신 헤라가 토르의 고향 아스가르드를 침략하고, 망치마저 잃은 토르가 최악의 위기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앞서 ‘토르’ 첫 번째 편은 169만명, 두 번째 편은 303만명이 분 바 있다.

/뉴시스

##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 첫 날 박스오피스 1위

배우 설경구가 주연한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감독 원신연)이 개봉 첫 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7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살인자의 기억법’은 전날 884개관에서 4340회 상영, 14만3588명을 불러모아 전날까지 1위였던 ‘킬러의 보디การ์ด’(4만7739명 3위)을 밀어내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매출액은 10억원, 매출액 점유

율은 38.6%였다. 이 흥행세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는 이날 오전 8시 현재 예매 관객수 4만3588명(예매 점유율 29.7%)으로 예매 순위 1위에 올라섰다.

이 작품은 김영하 작가가 2013년 내놓은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늙은 연쇄살인마가 딸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살인을 계획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다. 설경구·김남길·김설현·오달수 등이 출연했다.

영화는 유독 실종 사건이 많은 데리라는 마을을 배경으로 1년 전 사라진 동생을 찾아선 형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빌 스카르스고르드·제이든 리버허·핀 울프하르트·소피아 릴리스 등이 출연했다.

이밖에 박스오피스 순위는 4위 ‘택시운전사’(2만2067명, 누적 1194만명), 5위 ‘청년경찰’(2만1510명, 546만명) 순이었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